

갤노트7 사수... “새로 배우기 귀찮아”

충전율 60%→15% 강수에도 2만5000여명 계속 사용... “대체할 신규폰도 없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수 사용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전자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충전 제한율을 60%에서 15%까지 낮추는 강수를 내놨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강제 제한을 푸는 방법을 공유하면서까지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95%에 달한다. 갤럭시노트7의 국내 판매량이 50만대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5000명 가량이 아직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사용자는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 OS를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업그레이드 방지 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갤럭시7을 사용하는 ‘애착’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충전율이 15%로 제한되면 노트7의 실제 사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 등의 앱 사용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이런 조치에 맞서 블로그나 카페에 ‘갤노트7 사수’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라는 네이버카페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만64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 측에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이다.

갤노트7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브랜드 핸드폰으로 바꾸게 되면 손에 익었던 조작법을 새로 배우야 하기 때문이다.

갤노트7를 대체할만한 신규폰이 없



KT, UNGC리드컴퍼니 가입 KT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리드 컴퍼니(LEAD Company)'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황창규 KT 회장(오른쪽 네번째)과 리드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왼쪽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애플의 아이폰7이나 LG전자의 V20 등으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갤노트7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권 오훈(30)씨는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아이폰7 플러스 모델을 봤는데 사용환경이 너무 달라 옮기기 귀찮다”며 “또 갤럭시S7으로 바꾸기에는 화면도 작고 기기가 나온 지 너무 오래 됐다”고 말했다.

한 네이버 카페에선 “노트7을 대체

하거나 이보다 좋은 핸드폰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60% 충전 제한을 걸었을 때는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강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이전 버전으로 돌려 제한을 아예 푸는 방법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적으로 제한을 풀게 되면 일부 앱은 작동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법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갤럭시7 교환과 환불에 따른 혜택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1월부터 충전이 추가 제한될 수 있음을 거듭 안내해왔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일부터 충전율을 15%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부터,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뉴시스

갈 곳 잃은 자금 안전자산에 쏠려

부보예금 1년새 144조 ↑ ... 최근 5년간 증가세 지속

미국 기준금리 인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대거 안전자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전체 금융업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184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조6000억원(8.5%) 증가했다.

부보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예금을 말한다.

부보금융회사(은행·보험·금융투자·종합금융저축은행)는 지난해 6월말 기준 292개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은 2015

년 3분기 34조7000억원이었던 부보예금 잔액이 지난해 3분기 42조 1000억원으로 21.33%나 늘었다.

손해보험(13.68%)과 생명보험(9.52%), 은행(6.86%) 등의 부보예금 잔액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최근 5년 동안 부보예금 잔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보금융회사에서 예금보험료 1조400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은 11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뉴시스

온라인 예금·보험 상품 판매 25% ↑

지난해 전년 대비 금액 25.5% · 판매건수 30% 증가

지난해 온라인 예금·보험 상품 판매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주요 10개 은행의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여신 및 수신) 판매실적은 201만건,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154만 건, 12조 3000억 원)보다 25.9%(금액기준) 증가했다. 판매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0% 늘었다.

온라인 상품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대면채널 상품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통상 0.1%포인트 높고 대출금리는 0.1%포인트 낮다.

보험사는 텔레마케팅(TM), 인터넷

을 통해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품 위주로 비대면 전용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들 상품은 대면채널에 비해 낮은 사업비 부과 등으로 보험료가 대략 5~10%(인터넷 채널기준) 저렴하다. 20개 보험사 기준 작년 상반기 1조 7000억원어치(381만건)를 판매해 1년 새 27% 증가했다.

예·적금과 대출 상품, 연금저축 등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보험 상품은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뉴시스

EU, 인터넷 이용자 사생활보호 법안 발표

방문 정보 활용 온라인 광고 매출 페이스북·구글 같은 미국 IT기업들 타격 예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적 제한하는 사생활보호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방문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는 페이스북과 왓츠앱, 구글과 같은 미국 IT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IT기업들이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생성되는 코드 조각인 쿠키

(Cookie, PC에 저장된 인터넷 사용자의 기록)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메신저·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온라인 이용자들 간 대화 및 정보 기밀을 보장하는 등 EUSI인들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에스토니아 총리를 지낸 안드루스 안시프 EU집행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제안들은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신뢰를 줄 것이다”며 “전자통신과 프라이버시의 비밀성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생활법 초안은 올바른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들이 쇠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브라우저들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쿠키를 수집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 같은 쿠키 수집 동의 설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계약을 통해 개인과 체결한 동의보다 우선한다.

EU집행위는 만일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각 회사가 전 세계에서 올리는 매출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추적을 거부하면 온라인 광고는 계속 노출되지만, 맞춤형 광고 노출은 중단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관심사에 따라 광고를 제공하면서 온라인 광고에 프리미엄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전했다. /뉴시스

쉐보레 ‘올 뉴 크루즈’ 신차발표회 인터넷 생중계

한국지엠 쉐보레는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의 신차발표회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 뉴 크루즈 신차발표회는 오는 17일 오전 9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제품 공개 및 한국지엠 임원들의 제품 특장점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당일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BJ(Broadcasting Jockey) 디바제시카가 사회자로 나서 ‘심쿵 TOP 10 크루즈의 모든 것’을 진행할 계획

이다. 쉐보레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업계 최초로 신차발표회 생중계를 도입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왔다”며 “지난해 야구장에서 개최된 신형 말리부 신차발표회의 인터넷 생중계는 11만 여건의 시청이 일어나는 등 높은 인기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쉐보레는 올 뉴 크루즈 출시에 앞서 제품의 티저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고, 버스정류장에 티징 광고를 시작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